

[홈](#) > [뉴스](#) > [학술·연구](#)

한림대 연구진,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 증가

A 이정환 기자 | © 입력 2024.05.10 09:38 | 댓글 0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의과대학 이승순 교수팀과 생명과학과 김봉수 교수팀의 공동연구로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처방이 장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이임창 박사(1저자), 이승순 교수(교신저자), 김봉수 교수(교신저자)

이번 논문은 올해 미생물학 분야 상위 7.69%,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12.2를 기록하고 있는 국제저명학술지 거트 마이크로브(Gut Microbes)에 발표했으며, 제목은 ‘양성자펌프억제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 전파를 활성화시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Proton pump inhibitors increase the risk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olonization by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antibiotic resistant genes among bacteria in the gut microbiome)’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항생제 이외의 약제 영향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동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보균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총 282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항생제와 위산억제제의 병용 투여가 감염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내 마

인기기사

- 1 국제미래학회, ‘넷GF’
- 2 법원의 ‘의대 증원 잠
- 3 인공지능(AI) 디지털
- 4 총장 바뀌는 ‘거점국립
- 5 “학과 간 벽 철저히 깨
- 6 [입시특목] 51개 수도
- 7 음주 사라진 질서정연
- 8 한성대, 미국 국방외국
- 9 한양대 이주현 교수팀
- 10 한세대 개교 71주년

최신기사

- 교육부 “의대 증원 : 정”...24일 대교협 1
- 청운대, 2024 희망취업콘서트 성료
- 송곡대...대회 ‘총
- 배화여...24년 : 공동훈련센터 지원

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동시 처방할 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와 다양한 세균들 사이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파가 위산억제제 비 처방군에 비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진 이임창 박사와 이승순·김봉수 교수는 “항생제 처방 시 위산억제제(특히, 양성자펌프억제제)의 동시 처방에 주의해야 한다” 며 “위산억제제 과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항생제와 위산억제제의 적정 사용 전략 마련 및 그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과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중점연구소 사업(한국영양연구소)’, 그리고 과기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정환 기자 leejh@unn.net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남성이 주목한 콘텐츠](#) | [여성이 ...](#)

총장 바뀌는 '거점국립대'...의대 ...

“학과 간 벽 철저히 깨져야”...전...

음주 사라진 질서정연한 대학가 ...

“악성비염” 감염된 내 이들을 구...

AD



세종대 학생생활상
살예방교육 진행



강준호 서울대 사범
증365 위원회 위원



UNN TV

Ep.02 네오



Ep.02 네이버, 카카오페
진·더보기 웹툰 플랫폼

포토 뉴스



음주 사라진 질서정연

AD

순천향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구축...미래 신산업

2024-04-26

4년제 일반대·교육대 26개교 등 특금 인상...전문대는 18개교 인

2024-04-29

[연재기획 '라이즈 사업 기반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

2024-05-20

손가락 마디 통증에 도움됐던 "단 1가지" 방법

시크리티 Sponsored

AD

지옥같았던 3년, "역류성 식도염" 완치 비결

엘레비타 Sponsored

부산대·고신대, 한·양방 협력 연구 폐암 항암제 내성 극복 실마

2024-05-14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 대비 963억 원 투입...

2024-05-14

[대학세평] 8개大 탈락한 '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4-05-10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 선진 대학 만들기 캠페인

대학교 바로가기



매체소개

윤리강령

광고센터

기사제보

불편신고

제휴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UNN 한국대학신문

등록번호 : (주)서울 다 - 05879 (1988-08-31) | 대표이사발행인 : 홍준 | 편집인 : 최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용섭

등록번호 : 서울, 아00069 | 등록일 : 2005년 9월 26일 | 발행일 : 1996년 8월 5일

대표전화 : 02)2223-503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광고 : 02)2223-5050 | 기업-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주)한국대학신문

Copyright © 1999-2011 (주)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 UCN PRESIDENT SUMMIT iCUC 한국대학경영학연구원

